

옛날 순농서¹⁾ 삼형제(三兄弟)가 제줄²⁾ 올 때, 사냥질을 와서 큰성님[伯兄一]은 어림비[於音里]³⁾ 셋성님[仲兄一]은 과납[納邑里]⁴⁾ 족은아시[末弟]는 서늘(善屹里)⁵⁾ 버러졌구나.

옛날 신좌면(新左面)⁶⁾ 조천관(朝天館)⁷⁾에 안씨 선조(安氏船主)가 사옵데다.

안씨선조(安氏船主)가 조천관(朝天館)을 살아서도 청지예(青蓋瓦) 올린 와개집(瓦家一) 아옵거리, 벨진밧⁸⁾ 둘진밧⁹⁾ 유기제문(鎰器財物) 좋아지고 천아거부(天下巨富)로 살 때, 상선(上船)도 아옵[九], 중선(中船)도 아옵, 하선(下船)도 아옵척[九雙], 동좌면(東左面)¹⁰⁾ 간곤(艱困)훈 포구(浦口)에 집도 절[寺]도 엇인 풀쌍훈 사름 혜상영업(海上營業)이라도 헤 먹으렌 포구마다 베[船] 아옵척 씩 내여놓더라.

엇는 사름 농촌(農村)에 멤췌¹¹⁾ 주듯이 베 아옵 척씩 내여 놔 엇인 사름 살게끔 흐옵데다.

은양성탕(殷王成湯) 주무왕(周武王) 시절(時節) 칠년 한기(旱氣) 구년 숭년(凶年)이 들어 저 밧마다 모인 구둠¹²⁾이 일어나 제줏 벽성(濟州百姓)이 다 죽게 됐을때다.

그 때 제주목사(濟州牧使) 앞의 어떠훈 원고(願求)가 들어가둬 신좌면(新左面) 조천관(朝天館)에 사는 안씨선조(安氏船主)가 천하거부(天下巨富)로 산다 하니, 이 안씨선조 제산(財產)을 말해주민 우리 제주 벽성(濟州百姓) 사을[三日] 먹을 제산을 가졌다는 소문이 들어가, 동안(東軒)에서 급한 금부도수령(禁府都事)을 내여놔 삼문안[三門內]¹³⁾ 관원(官員)으로 데동(帶同)을 시킵데다.

금부도서(禁府都事)는 안씨선조(安氏船主) 집에 가 관원에서 데동호라 흐니 조천관(朝天館) 안씨선조(安氏船主) 집안은 대상(大聲) 우념굿이¹⁴⁾ 둘러집데다. 일가방답¹⁵⁾ 조천관 모든 사름덜도 우념굿이 둘러납데다.

안씨선조 관원에 들어가면 죽는 걸로만 알아지고 근심 수심으로 집안 가족덜광 이별해야 나옵데다.

금부도사(禁府都事) 앞의 사 삼문안[三門內] 관원(官員)으로 들어가 동안안[東軒內] 이 알로¹⁶⁾ 업데를¹⁷⁾ 흐옵데다. 업데를 흐니 제주목사(濟州牧使)가 나서 말을 흐뒈,

“너가 신좌면(新左面) 조천관(朝天館) 안(安)아무가이가 됐느냐?”

1) 순농서 : 지명. 순흥(順興)에서.

2) 제줄 : 제주를.

3) 어림비(於音里) : 애월면 어음리(涯月面於音里).

4) 과납(納邑里) : 애월면 납읍리(涯月面納邑里).

5) 서늘(善屹里) : 조천면 선흘리(朝天面善屹里).

6) 신좌면(新左面) : 지금의 조천면.

7) 조천관(朝天館) : 조천면 조천리의 고명(古名).

8) 벨진밧 : 별이 떨어진 밭이란 말로 넓은 밭을 뜻함.

9) 둘진밧 : 벨진밧에 대한 조운(調韻) 조어(造語).

10) 동좌면(東左面) : 지금의 구좌면(舊左面).

11) 멤췌 : 남에게 소를 위탁 사육시켜 번식한 새끼나 그 수익을 반으로 나누는 제도.

12) 모인 구둠 : 습기가 없는 먼지.

13) 삼문안(三門內) : 제주성(現濟州市) 3문안을 뜻함.

14) 우념굿 : 울음 굿. 소란한 울의 뜻.

15) 일가방답 : 일가친족.

16) 이 알로 : 맷돌 아래로.

17) 업데를 : 엎드리기를. 엎드리웁디다의 뜻.

“네.”

“널 데동(帶同)시킨 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 제주 벽성 승년(凶年)으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됐여시니, 본관(本官)이 소식을 들으니, 조천관 안씨선조가 우리 제주 벽성 사을 먹을 제산이 제겨¹⁸⁾ 있다니 그게 사실(事實)이냐?”

안씨선조 탄복과 수심으로 그득찬 얼굴이 서른오십[三十八] 낫바디¹⁹⁾를 들러 고개를 들르며 말을 헌드웨.

“예, 그것이 사실(事實)인가 헌옵네다.”

사또가 말을 헌드웨.

“그러거든 이 제주 벽성(濟州百姓)을 살려볼 도례(道理)는 엇겠느냐?”

“예. 어딧 영(侖)이라 거역(拒逆)흡네까?”

안씨선조 사또의 분부(吩咐)를 받아,

“저의 힘이 다 됐도록 죽는 벽성을 살려 보리웨다.”

안씨선조 그제사 이 목숨이 살았고나 생각하고 동문밖[東門外]을 나사²⁰⁾ 동좌면(東左面) 포구(浦口)마당²¹⁾ 뎅기멍 상선(上船) 중선(中船) 하선(下船) 어려운 벽성에 벌어 먹으라 주었던 배[船]를 모도 조천 포구에 드려 맵데다. 안씨 선조가 조천관(朝天館) 안 모든 사름을 다 동원시켜 돈창궤[金錢倉庫]를 모도 열려 상선(上船) 중선(中船) 하선(下船) 그득차게 돈궤[金櫃]를 다 열려 시꼽데다.²²⁾ 다 줄어시꺼 놓고, 상선 중선 하선 전베독선[全船獨船] 방구삼체²³⁾ 둥둥 울려 깃발 가는 낭 벳발²⁴⁾ 가는낭 무국섬²⁵⁾ 무국(貿穀)을 받으래 나갑데다.

배[船]를 부찌는 것이 영암(靈岩) 덕진드리²⁶⁾ 베진고달또로 배 부찌 안씨선조가 조선(朝鮮) 팔도강산(八道江山)을 뎅기웨. 제주 벽성 멱여 살릴 무곡(貿穀)이 엇어집데다.

마주막 나죽(羅州) 고을 들어사니 나죽고을에도 무곡(貿穀)이 엇어지고 근심 수심이 그득차서, 헌를날은²⁷⁾ 안씨선조 나죽(羅州) 고을 어느 술집[酒幕]에 가 약주 헌 그릇을 마시며 진²⁸⁾ 한숨내쉬명 근심을 헌다 보니, 한 술상 밑에 앗인 범박(凡博)헌신 양반이 안씨선조보고 말을 헌드웨.

“영감은 어딧 영감입네까?”

“어찌허여 물읍네까?”

“영감님 얼굴을 보니 수심이 그득찬 얼굴 기색(氣色) 그타지니, 어떠한 곤란인가 물어보젠²⁹⁾ 묻는 말씀입네다.”

“예. 저는 제주 신좌면(新左面) 조천관(朝天館)에 사는 안씨선조가 됐옵네다.”

“무슨 탄복(歎服)과 수심(愁心)이 됐옵네까?”

18) 제겨 : 쌓이어(積).

19) 낫바디 : 잇바디.

20) 나사 : 나서서.

21) 마당 : -마다.

22) 시꼽데다 : 실읍디다(載).

23) 방구삼체 : 방고삼체(放鼓三一). 출항(出航)의 신호로 북을 세번 치는 일.

24) 벳발 : 배(船)의 발. 깃발에 맞춘 조운(調韻)으로 배 가는 양의 뜻.

25) 무국섬 : 무곡(貿穀) 섬(石). 많은 곡식의 뜻.

26) 덕진드리 : 영암(靈岩)의 지명인 뜻.

27) 헌를날은 : 하룻날은.

28) 진 : 긴(長).

29) 물어보젠픈 : 물어보려고. 물어보자고.

“예,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제주 승년(凶年)으로 인한 악우로 제주 백성이 다 죽게 돼였습기 무곡(貿穀)이나 절다 제주 백성을 살려 보자 한 무곡이 엊어서 탄식하고 뎅기는 중입니다. 우리 조선 팔도강산을 다 돌아도 내 금전(金錢)에 맞는 무곡이 엊어서, 마주막에 나중 고을 와도 무곡이 엊어서 그냥 돌아가자니, 제주 사또의 명(命)이라 그대로 돌아가면 내 목숨이 부러질 것 같습니다.”

“얼마나 흔 금전(金錢)을 가져서 그런 말씀 하십니까?”

금박(儉朴)한 신 양반이

“이런 반가운 인연이 어디 시리…… 나는 우리나라 잉금 나주(羅州) 기민창고(濟民倉庫)에 삼년 묵은 무곡(貿穀)이 이신다. 이 무곡을 상신관(上試官)에서 풀아드리라 하워 풀지 못하여 근심 중에 있습니다.”

안씨선조(安氏船主)가 그 말을 들으니, 지쁜 마음으로 하늘 공중(空中)이라도 놓고픈 마음이라.

“그 무곡을 구경하기 어쩝니까?”

“어서 그리 하십시오.”

나주(羅州) 기민창(濟民倉)을 들어간 보니, 동창궤(東倉庫) 섯창궤 남창궤 북창궤 손가락 하나 디물 틈³⁰⁾ 웃이³¹⁾ 삼년 묵은 무곡(貿穀)이 이십데다.

안씨선조가.

“자, 이 무곡을 나안티 주기 어쩝니까?”

금박(儉朴)한 영감이 말을 헤워,

이 무곡에 맞는 금전(金錢)을 가집데가?”

“어서 나하고 가 봅시다.”

영감 둘이 베진고달포 포구(浦口)에 가고 보니, 상선(上船) 아옵 중선(中船) 아옵 전베독선[全船獨船]에 돈으로 그득 차, 기민창 무곡(濟民倉貿穀)과 돈과 마주 맞게 뛰옵데다.

“자 이 돈을 어찌 푸웁니까?”

안씨선조가 가만히 생각하단.

“이 돈을 푸는 거나, 이 무곡을 시끄는³²⁾ 거나 저 혼차³³⁾ 훌 테오니 염네(念慮)하지 마옵소서.”

“제주 안씨선조가 어떠한 여산을 가지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혼차 다 푸겠단 말입니까?”

“염네 말고, 두 일웨민³⁴⁾ 다 푸고 다 시끄겠습네다.”

“어서 그러거든 하십시오.”

안씨선조가 기민창궤(濟民倉庫) 올려³⁵⁾ 그득찬 무곡섬[貿穀石] 섬[石]으로 가져 들어 막걸리를 멘들고 다박주를³⁶⁾ 멘듭데다. 안씨선조(安氏船主) 멘든 다박주는 나중(羅州) 거리마다 골목마다 노상(路上)마다 수통에다 국박³⁷⁾ 띠와 다 놓데다.

30) 디물 틈 : 원형은 디물다. 넣을 틈. 찌를 틈.

31) 웃이 : 없이.

32) 시끄는 : 싣는(載).

33) 혼차 : 혼자.

34) 일웨민 : 이례(七日)면.

35) 올려 : 열어(開).

36) 다박주 : 탁주(濁酒).

37) 국박 : 바가지.

나중 고을 나중 벡성(羅州百姓) 남녀노소(男女老少) 웃이 넘어가다도 훈박³⁸⁾ 넘어오다도 훈 박. 다박주로 시넷물이 뒤도록. 나중 고을마다 거리마다 노상(路上)마다 막걸리 다박주로 대잔치를 흐옵데다. 흐를 이틀 하는 것이 칠일(七日) 일주일(一週日)??지 계속(繼續)뒈니. 거리마다 구석마다 ‘이게 어떤 음식인가?’ 거리공론 노상공론(路上公論)이 뒤옵데다.

그 때에 안씨선조이 두라간³⁹⁾ 이물사공[船頭沙工] 고물사공[船尾沙工] 한씨선조(韓氏船主) 송씨선조(宋氏船主) 황씨선조(黃氏船主) 거리노상(路上)마당 뎅기멍⁴⁰⁾.

“노상(路上) 거리 다박주는 제주(濟州) 조천(朝天) ?을 안씨선조 음식인다. 안씨선조 나중(羅州) 고을 모든 벡성(百姓) 어른신디 거리 노상 대잔치를 허여 나중고을 모든 벡성의 힘을 빌랴고 흡네다.”

그 때 나중(羅州) 고을 벡성(百姓)덜이 칠일 일퀘[七日]??지 잘 먹고 잘 써지니.

“안씨선조 어려운 수정(事情)을 독부족허여⁴¹⁾ 주기 어찌 흐까?”

이는 공논(議論公論)이 뒤여. 흐를날은 영암(靈岩) 덕진두리 배진고달포 포구(浦口) 안 꽉 차게 나중고을 벡성덜이 다 모다듬데다.⁴²⁾

전베독선[全船獨船] 벳장문 다 올고 발판두리를 놓아 남녀노소(男女老少) 웃이 ‘나가 문저 푸키여.’⁴³⁾ 서로이 앞두투멍 상선(上船) 중선 하선에 꽉 찬 돈을 포구(浦口)에 다 푸옵데다. 기민창고(濟民倉庫) 문을 다 올려놓고 삼년(三年) 묵은 무곡을 상선(上船)에도 꽉 차고 중선 하선에 꽉 차게 나중 고을 기민창(濟民倉) 무곡(貿穀)을 다 시꼽데다.

안씨선조가 반가운 눈물로. 덕진두리 배진고달포 멩지와당⁴⁴⁾ 실부름⁴⁵⁾ 나는 날.

“영자야. 화장(火匠)아. 닷 감으라. 베놓아 가자.”

흘 때. 나중(羅州)고을 모든 벡성(百姓)이 손 흔들멍 적삼 둘르멍 모두 전송초(餉送次)로 이별(離別)하고 작별(作別)하고 안씨선존 벳장 우[上]이 앗아 전송(餉送)을 받다 보니 성창(船艙) ? [邊]의 연반물치매⁴⁶⁾ 연반물저구리 갑초댕기⁴⁷⁾ 식갑머리⁴⁸⁾ 갈라 다와 등에 진 처녀아기씨가 서 대상지⁴⁹⁾ 옆에 차고. 안씨선조 오른 발판 우으로 웨씨 ?뜬⁵⁰⁾ 발자국 노아 벳장 우으로 오릅데다. 안씨선조(安氏船主)가.

“저게 어떤 처녀(處女)런고? 나중고을 숫새각시⁵¹⁾ 나하고 언담(言談)이나 흐레 오는 게 아닐려냐?”

벳장 우의??지⁵²⁾ 올라온 아기씨가 오도가도 아니허여. 피라곡절(必有曲折) 이상⁵³⁾하다. 아기씨 발자추를 벳장 구석마다 촛아바도 아기씨 발자추가 온 디 간 디 엊어 이상도 흐구나. 흘 수 웃이

38) 훈박 : 한 바가지.

39) 두라간 : 데리고 간.

40) 뎅기멍 : 다니면서.

41) 독부족허여 : 협조하여.

42) 모다듬데다 : 모여듬디다.

43) 푸키여 : 푸겠다.

44) 멩지와당 : 명주(明紬) 바다. 매우 잔잔한 바다의 뜻.

45) 실부름 : 실바람.

46) 연반물치매 : 연한 반물빛의 치마.

47) 갑초댕기 : 갑사(甲紗)댕기의 잘못.

48) 식갑머리 : 세 가닥으로 갈라 땋은 머리.

49) 서대상지 : 대바구니.

50) 웨씨 ?뜬 : 오이씨 같은.

51) 숫새각시 : 숫색시.

52) 우의??지 : 위에까지.

물때는 늦어지고 깃발을 내올려 베진고달또 포구(浦口) 밧妣⁵³⁾ 배를 놓읍데다.

영자 화장(火匠) 안씨선조(安氏船主) 한씨선조(韓氏船主) 송씨선조(宋氏船主) 박씨선조(朴氏船主) 벳노리⁵⁴⁾ 불러가멍 물무루로⁵⁵⁾ 배를 부찌, 아무리 안씨선조가 생각해도 피라곡절(必有曲折) 이상도 헤구나. 나 눈 앞의 학실(確實)히 총각머리⁵⁶⁾ 등에 저 영주댕기⁵⁷⁾ 지울려⁵⁸⁾ 벳장 우흐로 올랐는디. 이런 수상⁵⁹⁾ 미상(未詳)한 일이 어디 시랴.⁵⁹⁾

곰곰드리⁶⁰⁾ 생각⁶¹⁾ 보니 어늦새예⁶¹⁾ 제주(濟州) 물무루가 근당(近當) 헤옵데다.

여호돌⁶²⁾ 지나가저 말저 훌 때 대우리부름⁶³⁾ 혼 주제⁶⁴⁾가 불어 미리웨기 삼성제⁶⁵⁾ 저 절고개⁶⁶⁾ 가 안씨선조 오른 베 삼식번 굴글리더니⁶⁷⁾ 벳장으로 물집⁶⁸⁾ 터져 물이 솟아 올라가고 귀중(貴重) 혼 무곡섬(貿穀石)이 물집으로 등가질 때⁶⁹⁾ 안씨선조가 눈물을 흘리멍 열 손가락 7로 부벼,

“맹천(明天) 7뜬 하늘님아, 이 무곡섬이 들어가사 제중백성(濟州百姓) 다 살릴 게 아닙네까. 맹천(明天) 7뜬 하늘님아, 어서 고이 제중땅을 고이 고이 인로(引導)허여 줍소서.”

열손 받아 빌어올 때, 골라앗던 벳발이 물절 우의 나앗아 벳발마다 등등 뜁데다.

“이게 어떤 일일련고? 영자야 화장(火匠)아, 물집 난디 가 보아라. 어찌 웬 셈일려냐?”

이물사공[船頭沙工]이 말을 하뒈.

“선주님(船主一)아, 선주님아, 벳장 알을 보옵소서. 우리 초상(祖上)이 이신 듯 흡네다.”

그 말 들은 안씨선조(安氏船主),

“이게 무신⁷⁰⁾ 말인고.”

아닐커⁷¹⁾ 가고 보니, 혼 아구린⁷²⁾ 천아(天下)에 부떠 혼 아구린 지아(地下)에 부떠, 천구아구⁷³⁾ 대맹이(大蠻)라 웨오느다⁷⁴⁾ 빙빙 사려⁷⁵⁾ 물집을 막아십데다.

“우리 초상(祖上)이 분명⁷⁶⁾ 헤다. 어딜로 베[船] 부찌리.”

조천 포구(朝天浦口) 새콧알로⁷⁶⁾ 벳기[船旗]를 높이 올려 배를 부찌 발판 놓고, 안씨선조 바쁜 걸음으로 멘 보선 바랑으로⁷⁷⁾ 내돌려 모든 벽성 인수(人事)에도 인사도 아니받고, 얼른얼른 돌려

53) 밧妣 : 밖에.

54) 벳노리 : 벳노래.

55) 물무루 : 수평선.

56) 총각머리 : 뒤로 땋아 늘인 머리.

57) 영주댕기 : 영초(英綃)댕기.

58) 지울려 : 올려. ‘지-’는 접두사.

59) 시랴 : 있으랴.

60) 곰곰드리 : 깊이 생각하는 모양.

61) 어늦새예 : 어느 사이에.

62) 여호돌 : 본토와 제주 사이의 바다 이름.

63) 대우리부름 : 돌풍(突風).

64) 주제 : 소나기나 바람이 지나감을 세는 단위.

65) 미리웨기 삼성제 : 물결을 일컫는 말.

66) 절고개 : 물결고개(굽이).

67) 굴글리더니 : 흔들리더니.

68) 물집 : 배창이 터져 물이 들어오는 구멍.

69) 등가질 때 : 담가질 때.

70) 무신 : 무슨.

71) 아닐커 : 아닐커라의 축약. 아닌게아니라.

72) 아구린 : 아가리는.

73) 천구아구 : 천구-대맹(天口一大蠻) 큰 뱀.

74) 웨오느다 : 좌우로.

75) 사려 : 서리어.

76) 새콧알 : 조천리 해변의 지명.

들어 연주단발(剪刀斷髮) 흐오웁고, 안씨선조 부인보고 멩계낭⁷⁸⁾에 은단수불⁷⁹⁾ 울령도(鬱陵島) 주금상(紫金香)을 벡가지로 즘지롱이⁸⁰⁾ 께여 청감주(清甘酒)를 출려놓고 벗장 알로 들어가.

“초상(祖上)님아 초상님아, 우리 테운⁸¹⁾ 초상(祖上)이건 어서 발판 누려 집으로 그옵소서.”⁸²⁾ 아무 거동도 아니하고 굽은 눈도 아니 뜨고 몸칩마자⁸³⁾ 움직거리지 아니하니, 주손(子孫)덜도 앞의 앗아 어찌흘 줄을 몰라집데다. 흐는 거동만 보고 붉은 날이 다 뛰여 초·이경(初二更)이 당하니까, 천구(天口)?뜬⁸⁴⁾ 대맹이(大蟒)가 벳발판을 발아아전⁸⁵⁾ 새콧여레 누립데다. 집으로 가십서고 안씨선조가 들이돌아 질인도를⁸⁶⁾ 흐자니 천구아구대맹이는 새콧녀 뱃겼데레⁸⁷⁾ 술술흐게 발아 나옵데다.

안씨선조 사는 주당(住堂) 먼문 안으로 들어사 울성⁸⁸⁾ 안을 다 돌아바도 천구아구대맹이(大蟒)는 몸 금출 디가 엊어져, 한씨선조(韓氏船主) 박씨선조(朴氏船主) 송씨선조(宋氏船主) 사는 집안 울성 안을 돌아바, 새콧알로 돌아가도 오도 아녀니,⁸⁹⁾ 몸집⁹⁰⁾ 직혀 앗인 주손(子孫)덜 무정(無情) 눈에 즘이 오라⁹¹⁾ 머리 숙여 즘들었더니, 꿈에 선몽(現夢)을 드리워.

“선조(船主)덜아, 몸이 고단허여⁹²⁾ 즘이로다. 나는 나주(羅州) 기민창(濟民倉) 동서남북(東西南北) 창고(倉庫) 안을 직⁹³⁾ 무곡섬(貿穀石)의 초상(祖上)인디, 기민창고(濟民倉庫)가 비여가니, 나 갈 길이 엊어져 무곡(貿穀)을 뚫봐 오랐구나.⁹⁴⁾ 느네 선조(船主)덜 사는 울성장안⁹⁵⁾ 돌아바도 내 몸 금출 디가 엊어져, 나 갈 들로⁹⁶⁾ 갈 테이니, 안씨선조 상단골(上丹骨) 무어⁹⁷⁾ 송씨선조 하단골 무어 박씨선조 제민단골(濟民丹骨) 무어, 삼맹일(三名日) 기일제소(忌日祭祀) 일년(一年) 훈번 철갈이⁹⁸⁾로 나에게 상(床) 바찌민 좋은 제산(財產) 일루와 주곡 천하거부(天下巨富) 시겨주마. 나는 조천관(朝天館) 새콧알로 가는 선(船)도 츄지로다. 오는 선(船)도 츄지로다. 삼천증수(三千潛嫂) 일만어부(一萬漁夫) 내 츄지가 뛰여지니, 주손(子孫) 췄아 상(床)을 받고 좋은 제산(財產) 일뢰 주마.”

파딱흐게 께여나, 꿈에 선몽(現夢)이 뛰여지고 낭게일몽(南柯一夢)이 뛰옵데다.

천구아구대맹이(大蟒)는 새콧알 고망데레⁹⁹⁾ 천연(天然)으로 된 어귀 알레레¹⁰⁰⁾ 무섭고 서꺼

77) 보선 바랑으로 : 버선바람으로.

78) 멩계낭 : 청미래넝쿨.

79) 은단수불 : 단 숯불. '은-'은 조율음.

80) 즘지롱이 : 자잘하게.

81) 테운 : 내리어진의 뜻.

82) 그옵소서 : 걸으옵소서. 가옵소서의 뜻.

83) 몸칩마자 : 몸뚱이마저.

84) 천구(天口)?뜬 : 천구아구대맹이의 잘못.

85) 발아아전 : 타서.

86) 질인도 : 길인도.

87) 뱃겼데레 : 바깥으로.

88) 울성 : 울타리 성. 울타리의 뜻.

89) 아녀니 : 아니하니.

90) 몸집 : 몸뚱이.

91) 즘이 오라 : 잠이 와.

92) 고단허여 : 피곤하여.

93) 직⁹³⁾ : 지키던.

94) 뚫봐 오랐구나 : 따라왔구나.

95) 울성장안 : 울타리 성 장안(長安). 곧 넓은 울타리 안의 뜻.

96) 들로 : 데로. 곳으로.

97) 무어 : 맷어.

98) 철갈이 : 새해에나, 춘하추하(春夏秋冬) 절기가 바뀔 때 진경(進慶)을 비는 무제명(巫祭名).

99) 고망데레 : 구멍으로.

운¹⁰¹⁾ 몸천을¹⁰²⁾ 금추와 들어갑데다.

새곳알 들어사 가는 선(船) 오는 선(船) 츠지¹⁰³⁾고 삼천어부(三千漁夫) 일만점수(一萬潛嫂) 거느려, 새곳할망¹⁰³⁾으로 신과세(新過歲) 헤 넘는 공수로 상 받고 상단골(上丹骨) 중단골 하단골 무은 조손(子孫)의 주당(住堂)은 헤 넘어 철같이로 삼진정월¹⁰⁴⁾ 신과세(新過歲)로 상(床)을 받으옵고, 큰굿¹⁰⁵⁾에는 열두석시, 중당클엔¹⁰⁶⁾ 으¹⁰⁷⁾ 숯석시¹⁰⁷⁾ 앗인제¹⁰⁸⁾ 삼석시 일천간장(一千肝臟)을 풀리옵고, 큰굿 호민 큰 밧[大田] 나습고¹⁰⁹⁾ 족은굿 호민 족은 밧[小田] 나수와 고데강실(高臺廣室) 높은 집 남단북답(南田北畠) 너른 밧 유기제문(鎰器財物) 천하거부(天下巨富) 나수와 주던 조상(祖上)입네다.

안씨선조(安氏船主) 상단골(上丹骨) 무어 연양상고팡으로¹¹⁰⁾ 삼맹일(三名日) 기일제소(忌日祭祀) 메 훈기[一器] 정성(精誠) 받고 조손(子孫)덜 번성(繁盛)시겨 동여국이¹¹¹⁾ 내 츠지¹⁰³⁾던 나죽? 을 기민창(羅州濟民倉) 무곱섬(貿穀石)에 떨락오던¹¹²⁾ 부군칠성(富君七星)이 뛰옵네다.

- 濟州市 龍潭洞 男巫 安仕仁 口誦實演

옛날 순흥에서 삼형제가 제주에 왔을 때, 사냥을 하면서 다니는 것이 큰형님은 어음리에, 둘째 형님은 납읍리에, 작은 동생은 선흘리에 정착하여 자손들이 벌어집니다.

옛날 신좌면 조천관에 안씨 선주가 삽디다. 안씨선주는 조천관에 살면서도 청기와 올린 기와집 아홉거리와 넓은 밭을 갖고 유기제물이 많아 천하거부로 삽디다. 상선도 아홉, 중선도 아홉, 하선도 아홉 척을 동좌면의 가난한 포구에 내놓아 집도 절도 없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해상영업이라도 하여 살라고, 농촌에 소를 나누어 주듯이 없는 사람을 위해 배 아홉척씩 내놓아 살게끔 합니다.

은왕성탕 주무왕 시절, 칠년 한기 구년 흥년이 들어 밭마다 마른 먼지가 일어나 제주 백성이 다 죽게 됩니다.

그때 제주목사에게 신좌면 조천관에 사는 안씨선주가 천하거부로 산다 하는 소문이 들립니다. 이 안씨선주는 우리 제주 백성이 삼일 먹을 재산을 가졌다고 합니다. 동현에서 급히 금부도사령을 내놓아 삼문안 관원을 대동시켜 데리고 오도록 합니다.

금부도사는 안씨선주 집을 찾아가, 목사가 대동하여 관청으로 오라고 한다 하니, 조천관 안씨 선주 집안은 대성통곡으로 울음굿이 벌어집니다. 일가친족 조천관 모든 사람들도 울음판이 일어

100) 알레레 : 아래로.

101) 서꺼운 : 무섭고에 맞춘 조운구.

102) 몸천을 : 육신(肉身)을.

103) 새곳할망 : 신을 호칭하는 이름.

104) 삼진정월 : 상진 정월(上辰正月), 정월(正月)을 일컫는 말.

105) 큰굿 : 4당클 메어 하는 종합 무제(綜合巫祭)를 뜻함.

106) 중당클엔 : 3당클 곧 당클(祭棚)을 셋 메어 하는 큰굿을 말함.

107) 으¹⁰⁷⁾ 숯석시 : 여석석(六席).

108) 앗인제 : 앗은 제(祭).

109) 나습고 : 나게 하옵고.

110) 연양상고팡으로 : 영연상고방(靈筵上庫房), 광을 일컫는 말.

111) 동여국 : 동(東)의 국의 잘못, 곧 동좌면(東左面) 전부의 뜻.

112) 떨락오던 : 따라오던.

납니다.

안씨선주는 관청에 들어가면 죽는 것으로만 알아서 근심 수심으로 집안 가족들과 이별하여 나옵니다.

앞에 선 금부도사가 삼문안 관청으로 들어가 동헌 앞 맷돌 아래로 엎드립니다. 엎드리니 제주 목사가 나와서 말을 하되,

“네가 신좌면 조천관 안아무개가 되느냐?”

“예.”

“너를 대동시킨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제주 백성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되었으니. 내가 소식을 들으니, 조천관 안씨선주에게 우리 제주 백성 사흘 먹을 재산이 쌓여 있다니 그게 사실이냐?”

안씨선주 탄식과 수심으로 가득찬 얼굴이 서른여덟 이빠디를 들어 고개를 들으며 말을 하되,

“예. 그것이 사실인가 합니다.”

사또가 말을 하되,

“그러거든 이 제주 백성을 살려볼 도리는 없겠느냐?”

“예. 어디 영이라 거역합니까?”

안씨선주 사또의 분부를 받아,

“저의 힘이 다 되도록 죽는 백성을 살려 보겠습니다.”

안씨선주 그제야 이 목숨이 살았구나 생각하고, 동문밖을 나서서 동좌면 포구마다 다니면서 상선 중선 하선 어려운 백성에게 벌어 먹으라고 주었던 배를 불러 모두 조천 포구에 잡아 맵니다. 안씨 선주가 조천관 안의 모든 사람을 다 동원시켜 금전창고를 모두 열어 상선 중선 하선에 가득 차게 돈궤를 실읍니다. 다 실어놓고 상선 중선 하선 전배독선, 방고삼체 등등 울려 깃발 가는 대로 배가 가는 대로 많은 곡식을 사러 나갑니다.

배를 영암 덕진다리 베진고달포로 대고, 안씨선주가 조선 팔도강산을 다니며 곡식을 구했지만 제주 백성을 먹여 살릴 곡식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주 고을로 들어서서 곡식을 구하는데, 나주고을에도 곡식이 없어 근심 수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루는 안씨선주 나주 고을 어느 술집에 가서 약주 한 그릇을 마시며 긴 한숨을 내쉬면서 근심을 하는데, 한 술상 밑에 앉은 범박하신 양반이 안씨선주에게 말을 하되,

“영감은 어디 영감입니까?”

“어찌하여 묻습니까?”

“영감님 얼굴을 보니 수심이 가득찬 얼굴 모습 같으니 어떠한 일인가 물어보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 저는 제주 신좌면 조천관에 사는 안씨선주가 됩니다.”

“무슨 탄식과 수심이 됩니까?”

“예,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제주는 흉년으로 인하여 제주 백성이 다 죽게 되었기에 곡식이나 사다가 제주 백성을 살려보려 하는데, 곡식이 없어서 탄식하고 다니는 중입니다. 우리 조선 팔도 강산을 다 돌아다녀도 나의 돈에 맞는 곡식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주 고을에 와도 곡식이 없

어서 그대로 돌아가자니, 제주 사또의 명이라 그대로 돌아가면 내 목숨이 붙어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한 돈을 갖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검소하고 순박하신 양반이 나를 구해주려는가 보다. 이런 반가운 인연이 어디 있으리……”

“나는 우리 나라 나주 기민창고에 삼년 묵은 곡식이 있는데, 이 곡식을 나라에서 팔아 올리라 하되, 팔지 못하여 근심 중에 있습니다.”

안씨선주가 그 말을 들으니, 기쁜 마음으로 하늘 공중이라도 날고픈 마음입니다.

“그 곡식을 구경할 수 있습니까?”

“어서 그렇게 하십시오.”

나주 기민창을 들어가 보니, 동창고 서창고 남창고 북창고 손가락 하나 찌를 틈 없이 삼년 묵은 곡식이 있습니다.

안씨선주가.

“자, 이 곡식을 나에게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검박하신 영감이 말을 하되,

“이 곡식에 맞는 돈을 갖고 있습니까?”

“어서 나하고 가 봅시다.”

영감 둘이 베진고달포 포구에 가 보니 상선 아홉 중선 아홉 전배독선이 돈으로 가득 차 있어 기민창 곡식과 돈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자, 이 돈을 어찌 푸겠습니까?”

안씨선주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 돈을 푸는 것이나, 이 곡식을 싣는 것이나 저 혼자 할 테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주 안씨선주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혼자 다 푸겠다는 말입니까?”

“염려 말고, 두 이레면 다 푸고 다 싣겠습니다.”

“어서 그러거든 그렇게 하십시오.”

안씨선주가 기민창고를 열어 가득 찬 곡식을 가져다 막걸리를 만들고 탁주를 만듭니다. 안씨선주가 만든 탁주는 나주 거리마다 골목마다 노상마다 수통에다 놓아 바가지를 띠워 놓읍니다.

나주 고을 나주 백성 남녀노소 없이 넘어가다가 한 바가지, 넘어오다가 한 바가지, 탁주로 시냇물이 되도록 나주 고을 거리마다 노상마다 막걸리 탁주로 대잔치를 합디다.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칠일 일주일까지 계속 되니, 거리마다 구석마다 ‘이게 어떤 음식인가?’ 거리공론 노상공론이 됩니다.

그때에 안씨선주가 데리고 간 이물사공 고물사공 한씨선주 송씨선주 황씨선주가 거리마다 다니면서,

“노상 거리의 탁주는 제주 조천 고을 안씨선주 음식인데, 안씨선주가 나주 고을 모든 백성 어른께 거리 노상 대잔치를 하여 나주 고을 모든 백성의 힘을 빌리려고 합니다.”

그때까지 나주 고을 백성들이 칠일 이레까지 잘 먹고 잘 썼으니,

“안씨선주 어려운 사정을 협조하여 주면 어떨까?”

의논공론이 되어 하루는 영암 덕진다리 베진고달또 포구 안이 꽉 차게 나주 고을 백성들이 다 모여듭니다.

전배독선 뱃문을 다 열고 발판다리를 놓아 남녀노소 없이 ‘내가 먼저 푸겠다.’ 서로 앞을 다투며 상선 중선 하선에 꽉 찬 돈을 포구에다 펴 놓읍니다. 기민창고 문을 다 열어놓고 삼년 묵은 곡식을 상선에도 꽉 차고, 중선 하선에도 꽉 차게 나주 고을 기민창 곡식을 다 실읍니다.

안씨선주가 반가운 눈물로 인사를 하고 덕진다리 베진고달또에서 명주바다에 실바람이 부는 날, “영자야, 화장아, 닻을 감아라. 배 놓아 가자.”

할 때, 나주 고을 모든 백성이 손을 흔들면서 적삼을 돌리면서 모두 전송차로 이별하고 작별합니다. 안씨선주는 배 위에 앉아 전송을 받다 보니, 선창 가에서 연반물치마 연반물저고리를 입고 갑사댕기 세갈래 머리를 갈라 땋아 등에 진 처녀아기씨가 대바구니를 옆에 끼고 안씨선주가 오른 발판 위로 오이씨같은 발자국을 놓아 배 위로 올라옵니다.

안씨선주가.

“저게 어떤 처녀인고? 나주 고을 숯색시가 나하고 이야기나 나누려 오는 게 아닌가?”

그런데 배 위에까지 올라온 아기씨가 온 데 간 데 없이 없어지니 이상하다. 아기씨의 발자취를 배 바닥 구석마다 찾아봐도 아기씨 발자취는 온 데 간 데 없어 이상하구나. 할 수 없이 물때는 늦어져 깃발을 올려 베진고달또 포구 밖으로 배를 띠웁니다.

영자 화장 안씨선주 한씨선주 송씨선주 박씨선주는 뱃노래를 불러가면서 수평선으로 배를 몰아 가는데, 아무리 안씨선주가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구나. 자신의 눈 앞에 확실히 총각 머리 등에 지고 영초댕기를 올린 처녀가 배 위로 올랐는데 사라졌으니 이런 수상하고 이상한 일이 어디 있으랴?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 어느 사이에 제주 바다 수평선에 가까워집니다. 여호돌을 지날까 말까 할 때 돌풍이 한 번 휘몰아쳐 큰 파도가 안씨선주가 탄 배를 삼세번 흔들더니, 배 밑에서 구멍이 생겨 물이 솟아 올라가고 귀중한 곡식이 물통에 담가질 때, 안씨선주가 눈물을 흘리면서 열 손가락을 가로 비비며,

“명천 같은 하늘님아, 이 곡식이 들어가야 제주 백성을 다 살릴 게 아닙니까. 명천같은 하늘님아, 어서 곱게 제주 땅을 고이고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열손가락 모아 빌 때, 가라앉던 배가 물결 위에 둉둥 뜹디다.

“이게 어떤 일인고? 영자야 화장아 구멍 터진 데 가 보아라. 어찌 된 일인가?”

이물사공이 말을 하되,

“선주님아, 선주님아, 배 밑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이 있는 듯합니다.”

그 말 들은 안씨선주가,

“이게 무슨 말인고.”

아닌게 아니라 가 보니, 한 입은 천하에 불고 한 입은 지하에 붙은 큰 뱀이 좌우로 빙빙 서리어서 큰 물구멍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이 분명하다. 어디로 배를 댈까.”

조천 포구 새콧알로 깃발을 높이 올려 배를 대어 발판을 놓고, 안씨 선주 바쁜 걸음으로 맨버

선바람으로 내달읍니다. 안씨선주는 모든 백성 인사해도 인사도 안 받고 얼른얼른 집으로 달려들어가 손톱 깎고 머리 깎고 부인에게 청미래덩굴에 숯불을 사르고 울릉도 자금향 백 가지를 자잘하게 깨어 향불 피우고, 청감주를 차려 배로 갖고 오도록 하고, 배안으로 들어가.

“조상님아, 조상님아, 나에게 내리운 조상이면 어서 발판으로 내려 집으로 가십시오.”

아무 거동도 않고 감은 눈도 안 뜨고 몸집마저 움직이지 않으니, 자손들도 앞에 앉아 어쩔 줄을 모릅니다. 하는 거동만 보노라니 날이 어두워 초, 이경이 되자 큰 뱀이 배 발판을 타서 새곳여로 내려옵니다. 집으로 가시자고 안씨 선주가 달려들어 길 인도를 하니, 큰뱀은 새곳여 밖으로 술술 따라 나옵니다.

안씨선주 사는 집 먼 문 안으로 들어서서 울타리 안을 다 돌아봐도 큰 뱀은 몸을 감출 데가 없고, 한씨선주 박씨선주 송씨선주가 사는 집안 울타리 안을 돌아보고는 새곳알로 돌아가지도 않고 한참을 있으니, 몸뚱이를 지켜 앉은 자손들이 깜빡 잠이 듭니다. 꿈에 현몽을 드리되,

“선주들아, 몸이 피곤하여 잠을 자는구나. 나는 나주 기민창 동서남북 창고 안을 지키던 곡식의 조상인데, 기민창고가 비어가니 내가 갈 길이 없어져 곡식을 따라 왔구나. 너희 선주들 사는 울타리를 돌아봐도 내 몸 감출 데가 없어 내가 갈 데로 갈 테니, 안씨선주는 상단골을 맺고 송씨선주는 하단골을 맺고 박씨선주는 제민단골을 맺어, 삼명일 기일제사 일년에 한번 하는 철갈이 때에 나에게 제사를 지내면 좋은 재산을 일으켜 주고 천하거부를 시켜주마. 나는 조천관 새곳알로 가서 가는 배도 차지하고, 오는 배도 차지하고 삼천 해녀 일만어부를 차지하여 자손들한테 제상을 받고 좋은 재산을 일으켜 주마.”

벌떡 깨어나 보니 꿈에 현몽입니다.

큰 뱀은 새곳알 구멍으로 천연으로 된 어귀 밑으로 무서운 육신을 감추어 들어갑니다.

새곳알에 들어서서 가는 배 오는 배를 차지하고 삼천어부 일만잠수를 차지하여, 새곳할머니로 들어서서 신과세 때 해를 넘기는 제상을 받고, 상단골 중단골 하단골을 맺은 자손의 집안에서는 해를 넘어 철갈이때 정월 신과세로 상을 받읍니다. 이 신은 큰굿에는 열두석시, 중당클엔 여섯 석시, 앉은제는 삼석시로 일천간장을 풀리고, 큰굿 하면 큰 밭을 생기게 하고 작은굿 하면 작은 밭 생기게 하여 고대광실 높은 집과 남전북답 넓은 밭 유기재물로 천하거부를 만들어주던 조상입니다.

안씨선주와 상단골을 맺고, 고방에서 삼명일 기일제사 때 메 한 그릇으로 정성을 받고, 자손들을 번성시켜 동좌면을 차지하던 나주고을 기민창 곡식에 따라온 부군칠성이 됩니다.

현용준·현승환, 『제주도 무가』,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96, pp.382-397.